작성 : 2009년 12월

[참조 : http://www.naver.com 검색]

60십 갑자와 주역

① 왜 60갑자를 알아야 하는가 ?

예] 2009년은 기축년으로 소띠의 해. 소는 십이지의 두 번째 자리에 해당되며 소띠 해는 12년마다 을축(乙丑), 정축(丁丑), 기축(己丑), 신축(辛丑), 계축(癸丑) 등의 순서로 돌아온다.

예] 2010년은 경인년 호랑이띠의 해. 갑인·병인·무인·경인·임인 순으로 육십갑자가 순환해 60년 만에 돌아오는 백호랑이 해이다

예] 국사를 공부하다보면 갑신정변, 갑오개혁, 을미사변, 임오군란, 갑오경장 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② 10간, 12지 그리고 60갑자의 사용의 전설적 유래

- 중국의 황제(黃帝-중국건국신화에 나타나는 제왕으로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군주)가 십간으로 하늘을 상징하게 하고 십이지로 地形(지형)을 상징하게 하여 널리 퍼지게 함.
- 중국의 BC1766~BC1123년에 걸친 상(商)나라의 역대 왕의 이름을 살펴보면 태갑(太甲)·옥정(沃丁)·천을(天乙) 등 10간의 글자로 된 이름이 많으며, 이것으로 보아 이 시대에 이미 간지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 갑골문에 丙子, 癸未, 乙亥, 丁丑 등의 글자들이 보임으로써 확인 가능.
- 중국에서 갑을병정(甲乙丙丁) 등의 십간(十干, 天干)과 자축인묘(子丑寅卯) 등의 (十二支, 地支)의 글자를 아래 위로 맞추어 날짜의 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3천년 전부터.
- 십간과 십이지를 배합하여 60갑자가 합성된 것은 상당히 연대가 지난 뒤에 성립. 이것을 가지고 연대로 표기한 것은 약 2천년전, 한대(漢代)인 기원전 105년 丙子年부터 시작되었다. 大要氏(대요씨)가 십간, 십이지를 합하여 六十甲子(육십갑자)를 만들었다고 함.

③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현재 사용하고 있다. 원리를 추정하면

● 십간부터

십간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
음양	양(陽)	음(陰)	양(陽)	음(陰)	양(陽)	음(陰)	양(陽)	음(陰)	양(陽)	음(陰)
색	파랑		빨강		노랑		흰색		검정	
오행	(동쪽 木)		(남쪽 火)		(중앙 土)		(서쪽 金)		(북쪽 水)	
서기 년도	4	5	6	7	8	9	0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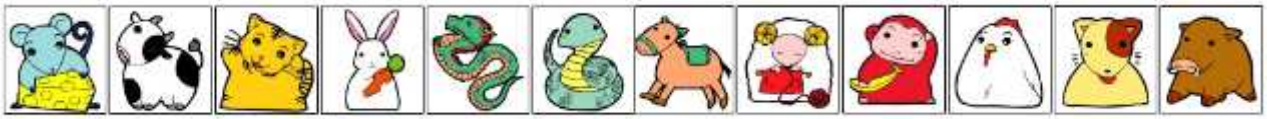
십간은 10일, 즉 1순(旬)이라는 뜻에서 나온 것 같으며,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로 표현된다. 점술가는 십간을 천간(天干)이라 하고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을 부속시킨다.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라는 10간은 하루하루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10일을 1순으로 하여 한달을 3순으로 나누었으며 매번 중복되는 달수를 피하여 12지간을 붙여서 사용하였고, 또 이것으로 60갑자를 만들어 사용. 또한 십간은 10년을 주기로 순환하며, 이는 서력이 십진법을 쓰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같은 해는 같은 십간, 즉 같은 천간을 가짐을 알 수 있다.

● 십이지의 정의

작성 : 2009년 12월

십이지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
음양	양(陽)	음(陰)	양(陽)	음(陰)	양(陽)	음(陰)	양(陽)	음(陰)	양(陽)	음(陰)	양(陽)	음(陰)
오행	수(水)	토(土)	목(木)	목(木)	토(土)	화(火)	화(火)	토(土)	금(金)	금(金)	토(土)	수(水)
동물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십간과 아울러 십이지(十二支)가 상(商)시대에 널리 쓰였다. 이 십이지는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이다. 12라는 수를 택한 기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1년이 12달이라는 데에서 온 듯하다. 물론 12라는 수는 2, 3, 4,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이므로 다루기에 흥미 있는 수이다.

십이지는 지기(地氣)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음양과 오행이 결부되었다. 또 십이지수(十二支獸)라고 하여 동물과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역월(曆月) ·방위(方位) ·시각(時刻) 등 여러 방면에 이용된다. 구체적으로 자 ·인 ·진 ·오 ·신 ·술은 양이고 축 ·묘 ·사 ·미 ·유 ·해는 음이라고 하였다. 또 축 ·진 ·미 ·술을 토(土)로 하고, 인 ·묘를 목(木), 사 ·오를 화(火), 신 ·유를 금(金), 해 ·자를 수(水)로 배당한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를 십이간지(十二干支) 또는 십이지지(十二地支)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불교적인 신앙에 유래된 것으로 호법신으로 신을 물리칠 수 있는 12가지의 동물로 신의 장수를 표현하는데서 유래한다.

그 후에 시간을 구분할 때 하루를 12등분하여 자시, 축시, 인시, ... 나누어 오늘 날 24시간으로 나눈 것과 같이 사용. 또한, 십이지의 경우, 12년을 주기로 돌아오며, 특정 해, 혹은 자신의 생년으로부터 기산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 육십간지, 육십갑자

- 60갑자는 10간(干)과 12지(支)를 조합하여 만든 60개의 간지(干支)로서 육십간지·육갑이라고 한다.
- 60간지는 원래 날짜를 세기 위하여 썼을 것이다. 이 60이라는 주기는 두 달쯤에 해당하는 적당한 주기이다.

작성 : 2009년 12월

1 갑자	11 갑술	21 갑신	31 갑오	41 갑진	51 갑인
2 을축	12 을해	22 을유	32 을미	42 을사	52 을묘
3 병인	13 병자	23 병술	33 병신	43 병오	53 병진
4 정묘	14 정축	24 정해	34 정유	44 정미	54 정사
5 무진	15 무인	25 무자	35 무술	45 무신	55 무오
6 기사	16 기묘	26 기축	36 기해	46 기유	56 기미
7 경오	17 경진	27 경인	37 경자	47 경술	57 경신
8 신미	18 신사	28 신묘	38 신축	48 신해	58 신유
9 임신	19 임오	29 임진	39 임인	49 임자	59 임술
10 계유	20 계미	30 계사	40 계묘	50 계축	60 계해

십간과 십이지는 각각 10년과 12년마다 순환하며, 두 숫자의 최소공배수는 60으로, 하나의 간지는 60년마다 돌아오게 된다. 즉 태어나서 만으로 60세 생일이 되는 해는 자신이 태어난 해와 같은 간지, 즉 갑자를 가진다고 하여, 환갑(還甲 - 갑자가 돌아옴) 혹은 회갑(回-)이라고 한다.

天干(천간)의 첫 번째 甲(갑)은 서기 연도의 끝자리가 '4', 을은 5, 병은 6, 정은 7, 무는 8, 기는 9, 경은 0, 신은 1, 임은 2, 계는 3이 된다.
정묘호란 [丁卯胡亂, 1627)에서 丁(정)은 7, 壬午軍亂(임오군란, 1882)에서 壬(임)은 2, 甲申政變(갑신정변, 1884)은 甲(갑)은 4, 甲午更張(갑오경장, 1894)은 여기서도 甲(갑)이므로 4, 그다음은 申(신)과 午(오)로 구분해야 한다. 12지 한자를 비교하면 '신'을 뒤로하여 10개 12지 뒤에 '오'가 배치되므로 갑신년이 갑오년보다 10년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0간지 참조]

< 60갑자의 적용시기 >
③ 12지의 동물성 부여(띠)
십이지가 다시 동물로 상징되어 자를 쥐, 축을 소, 인을 호랑이 등 동물을 배정시킨 것은 2세기경인 후한(後漢) 왕충(王充)의 {논형(論衡)}에서 처음으로 생긴 것이다.
이런 동물로서의 표현이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한경(漢鏡)에서이다. 그 후 오행가(五行家)들이 십간과 십이지에다 金木水火土의 오행을 붙이고 상생상극(相生相剋)의 방법 등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배열하여 인생의 운명은 물론 세상의 안위까지 점치는 법을 만들어 냈다.
그 후 당대(唐代)의 종이나 부장품으로서 용(俑)의 형태로 나타난다. 십이지가 다시 수수인신상(獸首人身像)으로 변모하는 것은 당(唐) 중기로서 신라의 십이지상의 발생시기와 견주어 전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동시적이다. 십이지가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당나라와 신라에서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것이다.

정리하면

<60갑자의 처음 사용> ; 10간과 12지의 조합으로 날짜를 나타내는 말로는 3000년 전부터 사용하였는데 이는 갑골문자의 유물에서도 증명이 된다.

<60갑자의 연대 사용, 기원전 105년 병자년이 첫 시작> ; 60갑자를 연대에 표기한 것은 약 2천년전 한대(漢代)인 기원전 105년 丙子年부터 시작

<12지가 동물로 표현되기 시작한 시기> ; 12지가 동물로 상징된 것은 2세기 경인 후한 왕충의 <논형>에서 시작.

작성 : 2009년 12월

◆ 12지의 유래

열두 동물이 쥐, 소, 호랑이, 토끼의 순서로 이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합니다. 옛날 하늘의 대왕이 정월 초하루 천상의 문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동물부터 지위를 주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 느린 소는 하루 전날 밤길을 나섰고, 머리 좋은 쥐가 소 등에 올라탔다가 도착하기 직전 뛰어내려 가장 먼저 문에 도착했다는 것이지요.

동물의 발가락 수를 기준으로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쥐는 앞뒤 발가락 수가 다른데, 앞발은 홀수, 뒷발은 짝수이기에 특이하다고 해서 맨 먼저 자리를 잡았고, 그 뒤로 소(4), 호랑이(5), 토끼(4), 용(5), 뱀(0), 말(7), 양(4), 원숭이(5), 닭(4), 개(5), 돼지(4)의 순서로 발가락 숫자가 홀수와 짝수인 동물을 서로 교차하여 배열한 것이지요.

또 각 동물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했다는 설도 전합니다. 예를 들어 자시(밤 11시~새벽 1시)는 쥐가 제일 열심히 뛰어다니는 때이고, 축시(새벽 1시~3시)는 밤새 풀을 먹은 소가 아침 밭갈이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 쥐는 왜 12지의 으뜸이 되었는가 ?

왜 용과 호랑이가 12지지 중의 우두머리가 되지 못했을까? 쥐가 부정하게 우두머리가 된 것일까 ? 이 문제는 남송시대에 이미 제기되어 논란의 여지가 되었으며 정리하면 다음 5가지 학설이 있다.

① 陰陽說(음양설)

<여기서의 음양이란 발굽과 발의 홀짝의 수로 정해진 것이다. 홀수는 양, 짝수는 음이다.>

호랑이는 5개의 발가락, 용은 5개 발톱, 말은 기이한 발굽, 원숭이는 5개 손가락, 개는 5개 발가락 평균적으로 홀수로서 양에 속한다. 소, 양, 돼지는 모두 짝수의 발굽이며, 닭은 4개의 발가락, 토끼는 2개의 발, 뱀은 2갈래의 혀로 평균적으로 짝수이며, 음에 속한다. 유일하게 쥐는 특수하여 앞 발가락이 4개이며, 뒤발가락은 5개라서,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이다. 음양을 모두 갖추었고, 그러한 까닭으로 12지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하지만, 이 학설은 쥐를 제외한 다른 동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暘谷漫錄(양곡만록)》이라는 수필에 따라 기록한 것이라, 정확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時序說(시서설)

<해당 동물과 가장 관련있는 시간에 따라 서열을 배열한 것이다.>

쥐는 한 밤 자시에 나와서 활동한다. 소는 축시에 되새김질을 하고, 호랑이는 인시에 가장 사납다. 토끼는 묘시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용은 진시에 비가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뱀은 사시에는 행인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한밤중인 자시로 구분한다. 그래서 쥐가 하루 12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 설은 남송시대 朱喜(주희)가 제기한 것이다. 당시 학자 왕응린은 그것은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것이라며 배척했다.

③ 爭先說(쟁선설)

<軒轅(헌원) 황제가 12지지 동물을 당번으로 배열했다.>

작성 : 2009년 12월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 달리기 시합으로 결정내렸다. 소는 열심히 달려서 선두에 서게 되었다. 쥐는 속으로 한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막 결승전에 도달하려고 할 때 쥐는 소뿔위로 올라가서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 1등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민간고사일 뿐이다.

④ 28宿說(28숙설)

최근에 제기된 설로, 지지서열은 하늘의 28수의 서열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28수란 달의공전주기 27.82일이라는 것에 착안해서 적도대를 28의 구역으로 나눈 것으로 현재 별의 위치를 찾을 때 이용하는 적경의 구실을 하는 것이다.

과학의 해석을 만들어 내려고 힘썼지만, 12지지와 28수, 양쪽이 도대체 누가 먼저고 뒤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⑤ 神祇說(신기설)

중국의 12지지는 인도의 12지지에 근원을 둔다. 인도의 12지지는 원래 12천신지기(神祇) 아래의 12神獸(신수)이다.

〈阿婆縛紗(아파박사)〉,〈行林痹(행림초)〉의 기록에 따르면,

招杜羅(초두라) 神將(신장)은 쥐를 끌고, 毗厘羅(비갈라) 신장은 소를 끌고,

宮毗羅(궁비라) 신장은 사자를 끌고, 伐析羅(벌석라) 신장은 토끼,

迷企羅(미기라) 신장은 용, 安底羅 신장은 뱀을 끈다.

安彌羅(안미라) 신장은 말을, 珊底羅(산저라) 신장은 양을,

因達羅(인달라) 신장은 원숭이를, 婆夷羅(파이라) 신장은 금시작(<!-- badtag filtered -->검<!-- badtag filtered -->은<!-- badtag filtered -->머리<!-- badtag filtered -->방울새)을, 摩虎羅(마호라) 신장은 개를, 眞達羅(진달라) 신장은 돼지를 끈다.

이에 따라 12지지 중에 쥐가 천신지기를 섬김으로서, 12신장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작성 : 2009년 12월

● 더욱 자세히 ; [참조 http://blog.naver.com/hs72hs72/60092065778]

◆ 天干(천간:십간)과 地支(지지:십이지) 10간 12지

음양이 <태양>, <태음>, <소음>, <소양>의 사상을 낳고, 사상을 변화시키는 <土化作用>의 주체인 <土>가 가세하면서 사상은 마침내 5행으로 변하게 되었다. 여기에 다시 사상은 자체적인 陰陽分裂로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의 팔괘를 형성하게 되었고, 5행은 천체현상으로서의 5運으로, 또 이 5운이 지구로 들어오면서 지축의 기울어진 현상으로서 寅申相火 현상이 발생, 5運에 한가지 현상이 더 보태져 6氣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같은 5運이 천체에서 다시 自加陰陽分裂하여 10가지 현상을 낳았으며, 6기도 지구내에서 陰陽分裂하여 12가지 현상을 배태하게 되었으니, 이 10가지 현상이 바로 10干이며, 12가지 현상이 바로 12支인 것이다. 이같은 10간 12지지의 탄생은 우리 인간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왜 중요한가?

10간 12지지는 씨줄과 날줄 역할을 하며 상호 결합되고, 마침내 60갑자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 60갑자가 무엇인가? 인간사 길흉화복이 모두 여기에 걸리는 것이며, 眼, 耳, 鼻, 舌, 觸, 神에서 오는 여섯가지 욕심과 喜怒哀樂愛惡慾의 일곱가지 감정도 모두 여기에서 출발한다.

10간이란 하늘의 기운을 시간과 공간에 따라 10개로 쪼개어 배치한 것으로, 그 기본원리는 하도와 낙서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10간의 정의>

10干에서 간(干)이라는 것은 그 글자의 구성이 <하나(一) + 열(十)>이므로, 곧 1부터 10까지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천자갑지계(天自甲至癸)라 하여 하늘의 기운을 甲에서부터 癸까지 총 10개의 기운으로 쪼개어 구분해놨다. 이를 괘상으로 나타내면 8卦 + 陰土, 陽土를 의 10개를 의미하기도 한다.

<10간의 시간배속>

10간을 시간으로 배속하면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에 배속시킬 수 있다. 양기가 처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초춘(初春)은 甲, 맹춘(孟春)은 乙, 양기가 번성하기 시작하는 초하(初夏)는 丙, 염하(炎夏)는 丁, 만하(晩夏)는 戊己, 음기가 최초로 나타나는 초추(初秋)는 庚, 만추(晩秋)는 辛, 초동(初冬)은 壬, 엄동(嚴冬)은 癸이다.

<10간의 공간배속>

10간을 공간으로 배치시키면 동, 서, 남, 북, 중앙의 5방위로 배속시킬 수 있다. 이는 하도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데, 하도에 의하면 북방은 水가 작용하고, 남방은 火가 작용하며, 동방은 水가 火로 분열 발전하는 과정이니 木이 작용하고, 서방은 火가 水로 통합 수렴하는 과정이니 金이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방에는 甲,乙 木이요, 남방에는 丙, 丁 火요, 서방에는 庚, 辛 金이요, 북방은 壬, 癸 水요, 중앙에는 이 4방을 조정하는 중화(中和)의 자리이니 곧 戊, 己 土가 배치된다.

<10간 각각의 의미>

작성 : 2009년 12월

이 같은 10간의 기초지식을 배경으로 이번에는 각각에 대한 해석을 하여 보기로 하자.

갑(甲)은 고문을 보면 옆의 그림과 같이 생겼다. 甲의 원래 뜻은 딱딱한 거북이의 껍질과 같은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외곽이 딱딱한 상은 그림에서처럼 파란색이 사방으로 둘러져 있는 것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 외곽의 딱딱한 음기운을 봄철이 되면 내부에 있던 陽氣가 강하게 뚫고 나오는 바, 그 최초로 <뚫고 나오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 甲의 뜻이 된다. 이에 따라 입춘이 되면 새싹이 땅 속에서 그 강한 생명력으로 최초의 움을 틔우는 바, 甲의 형상과 같다고 할 것이다. 파충류나 조류들도 최초에 나올때는 딱딱한 알껍질을 깨고 나오고, 포유류들도 역시 처음에 나올때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치골을 벌리고 나와야 하므로, 엄청난 힘이 필요한 바, 조류는 모든 기운이 부리 끝에 모여있게 되고, 포유류는 모든 기운이 머리 끝에 모여있게 되어 부리나 머리가 강한 뼈로 둘러싸여 있게 되는 것이다. 甲은 이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을(乙)은 대지가 햇빛을 받아 한참 따뜻해지면서 땅속에 있던 씨앗들이 강한 힘으로 그 속의 생명력을 뻗어 나오는 상을 취한 글자이다. 乙자의 위는 위로 뻗어 올라온 새싹을 뜻하며, 아랫쪽의 긴 푸른 선은 땅속으로 뿌리가 뻗어 내려간 모습이다. 이렇게 춘분을 지나면 모든 씨앗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바, 그 모습이 마치 태극이 휘감아 돌아 나가는 모습처럼 보여 乙字를 쓰게 된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정감록 같은 책을 보면 弓弓乙乙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같은 弓자나 乙자는 모두 다 휘돌아 감겨든 모습을 취한 것으로 곧 <太極>을 의미하는 것이다.

병(丙)은 봄이 지나고 바야흐로 여름이 되면서 사방에서 막고 있는 음기를 뚫고 양기가 솟구쳐 올라가는 상을 취하여 만든 글자이다. 절기로는 입하(立夏)이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양기가 천지를 지배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火氣가 완전히 陰氣를 극복하지는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여전히 陰氣를 계속 극복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준다.

정(丁)은 하지(夏至)절기를 뜻하며, 강성한 火 기운이 陰氣를 완전히 극복하고서 위로 솟구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천지는 火氣로 가득차게 되며 몹시 무더운 시절이 나타나게 된다. 陰氣는 이 때부터 완전히 陽氣에 제압된 모습을 보이니 바야흐러 陽의 시대라 아니할 수 없다.

무(戊)는 항룡유회(亢龍有悔)라, 그 강성함이 마침내 극에 다다른 모습이다. 그리하여 그토록 강한 기세로 뻗어가던 양기(陽氣)가 옆의 그림처럼 창에 찔려(戈 : 金기운을 상징) 그 기세가 꺽이려고 하는 찰라에 놓여져 있다. 戊의 위치는 입추(立秋)를 전후한 절기에 해당하며, 양기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기이다. 이때부터 그 염열(炎熱)에 밤까지 열기가 식지않는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게 된다. 천지가 마치 뜨거운 화로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극즉반(極則返)이라 하였다. 때가 이르르니 화려함을 자랑하여 滿開했던 꽃들도 지고, 극에 이른 즉,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주의 이치다.

기(己)는 그림에서 보듯, 고서체에서는 오늘날의 己자와 다르게 좌우가 바뀌어 있는 모습이다. 태극이 휘감아 들어가며 양기는 급격히 쇠퇴하고 음기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는 시기이다. 처서(處暑)절기 ~ 백로(白露)절기 사이로, 마침내 陽氣에서 陰氣로 전환되는 전환점(Turning Point)에 있는 상을 취하였다.

경(庚)은 마침내 陰氣가 陽氣를 포위하는데 성공을 한 모습에서 상을 취하였다. 위로 번성하던 火氣를

작성 : 2009년 12월

아래로 누르기(X) 시작, 陽氣를 위에서부터 쇠퇴시키고 있다. 절기로 보면 백로(白露)절기를 지나 드디어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때이다.
하지만 여전히 양기는 아랫쪽으로 긴 꼬리를 내밀면서 미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낮에는 여전히 따가운 햇살이 비친다.

신(辛)은 陰氣가 사방에서 陽氣를 분산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양의 세력이 사분오열된 모습이다. 이제 陰氣가 완전히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낮에도 쌀쌀하고, 밤에는 춥다. 절기로 보면 한로(寒露)절기 ~ 상강(霜降)절기 사이가 된다. 이제 나무들은 물기를 뿌리로 내리기 시작하여 낙엽이 우수수 지고, 동물들은 겨울을 나기위해 부지런히 자기 몸 속에 영양분을 축적하게 된다.

임(壬)은 위치에 이르는 바, 어느쪽으로도 뻗지 못한 양기가 중앙으로 집중되기 시작한다. 그림에서 보면 중앙에 불룩한 양기의 공이 형성되는 바, 위, 아래로 음기에 의해 막혀 오도가도 못한 양기가 어쩔수 없이 가운데로 몰리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절기로 보면 입동(立冬)절기 ~ 대설(大雪)절기가 된다. 이제 혹독한 추위에 모든 생물들은 혹시 죽지 않을까 걱정하기에 이르른다.

계(癸)는 壬에서 가운데로 불룩했던 陽氣가 좌우로 돌파를 시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이제는 좌, 우측에까지 陰氣가 막고 있어서 陽氣는 마침내 <사면초가(四面楚歌)>가 되었다. 절기로는 동지(冬至)절기 ~ 대한(大寒)절기 사이로 실제 죽는 생물들이 많이 발생한다. 大地는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이게 되고 생명의 기운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죽음의 기운이 온 천하를 휩쓸고 있는 상이다.

<12지(支)의 정의>
10간의 天干 기운이 지구로 들어오면서 음양으로 분파되고, 여기에 조화의 본체 황극작용(皇極作用)이 개입되면서 각각의 오행은 생장성(生長成)의 3원(元)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오행이 마치 가지를 뻗듯 12개로 분파가 되기 때문에 가지 지(支)자를 써서 정의를 하였다. 이 3원 운동은 쉽게 말해서 무형(無形)의 기운이 형체를 뒤집어 쓰게 되는 물질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 같은 3원운동의 최초 작용 결과로 10간이 12개의 지지로 대응 변화를 하게 되면서 만물이 생겨나는 기초를 이루게 된다.

즉, 위의 표에서 보듯, 10간이든 12지든 본체는 5행인데, 단지 하늘에서 작용하느냐 또는 땅에서 작용하느냐에 따라 운동형태가 바뀌게 되는 것이며, 이때 하늘에서는 음양의 운동을 하고, 땅에서는 음양운동에 토화작용(土化作用)이라고 하는 황극운동이 가미되어 생장성의 3원운동을 하게 되어 총 12개로 분파 되는 것이다.
또한 하늘의 운동과 땅의 운동의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면 바로 土의 기운이 드러나냐 아니면 잠복하냐 하는 것인데, 하늘에서는 土가 중궁(中宮)을 지키면서 존재하고 있지만, 땅에서는 만물의 속에 잠복이 되는 바, 목, 화, 금, 수에 내장되는 것이다.

위의 표에서 눈 여겨 봐야 할 내용은 바로 3원운동에서 성(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토(土)라는 것이다. 즉, 생장(生長)은 고유한 오행의 기운이 임무를 맡고 있지만, 그 고유한 기운을 다른 기운으로 넘기는 작용은 바로 토(土)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 하여야 한다. 이것을 토화작용(土化作用)이라고 하는데, 이 토화작용의 영향으로 각각의 토(土)는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상세

작성 : 2009년 12월

한 토화작용의 원리는 다음에 소개하기로 한다.

<12지의 시간배속>
12지는 1년으로 따지면 봄이 시작하는 초춘(初春)은 인(寅)이요, 음력 1월이며, 중춘(仲春)은 묘(卯)요, 음력 2월이며, 계춘(季春)은 진(辰)이요, 음력 3월이며, 초하(初夏)는 사(巳)요, 음력 4월이며, 염하(炎夏)는 오(午)요, 음력 5월이며, 맹계하(孟季夏)는 미(未)요, 음력 6월이며, 초추(初秋)는 신(申)이요, 음력 7월이며, 중추(仲秋)는 유(酉)요, 음력 8월이며, 만계추(晩季秋)는 술(戌)이요, 음력 9월이며, 초동(初冬)은 해(亥)요, 음력 10월이며, 맹동(孟冬)은 자(子)요, 음력 11월이며, 엄계동(嚴季冬)은 축(丑)이요, 음력 12월이 된다.
12지를 1일로 따지면 하루의 시작은 자(子)에서부터 해(亥)까지 2시간 단위로 교대하게 된다.
여기에서 약간의 의문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 1년으로 따지면 인(寅)부터 시작하면서 하루는 자(子)에서 출발하냐고…
물론, 1년을 구분함에 있어서도 자(子)에 해당하는 음력 11월에 동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동지(冬至)를 일양시생(一陽始生)이라고 하여 이때를 시작으로 잡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태양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을 완전히 한바퀴 돌게 되는 상황에 대한 별칭인 바, 이는 공간작용을 계산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적으로 일양이 시생하는 때라고 하여 자(子)의 위치를 시작으로 잡으면 공간 자체가 아직 북쪽에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다.
즉, 우리들이 생활하는 최대 주기 단위인 1년은 시간적으로 보면 일양이 시생하는 자(子)월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지만 실질적인 공간의 이동은 축(丑)월 끝에 가야 비로소 음기가 물러나고 양기가 우리 피부에 와 닿게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시공작용이 완전히 종결짓는 위치를 축(丑)이라고 봤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전년도의 4계절 순환운동은 축(丑)의 위치에서 끝이나고, 새로운 1년의 4계절 순환 운동의 시작은 바로 인(寅)이 되기 때문에 인(寅)을 시작으로 잡은 것이다.
이와 달리 1일의 변화는 시공의 상대적 변화가 아닌, 지구 자체의 운동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자(子)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자(子)를 시작으로 잡게 되는 것이다.

<12지의 공간배속>
12지를 공간에 배속하면 10간과는 달리 중앙이 드러나지 않고 동서남북의 4방으로만 배치가 된다. 즉, 동방은 인묘진(寅卯辰)이요, 남방은 사오미(巳午未)요, 서방은 신유술(申酉戌)이요, 북방은 해자축(亥子丑)으로 각각 배속이 된다.

● 주역 [周易]

유교의 경전(經典) 중 3경(三經)의 하나인 《역경(易經)》을 말함.

단순히 《역(易)》이라고도 한다. 이 책은 점복(占卜)을 위한 원전(原典)과도 같은 것이며, 동시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흉운(凶運)을 물리치고 길운(吉運)을 잡느냐 하는 처세상의 지혜이며 나아가서는 우주론적 철학이기도 하다. 주역(周易)이란 글자 그대로 주(周)나라의 역(易)이란 말이며 주역이 나오기 전에도 하(夏)나라 때의 연산역(連山易), 상(商)나라의 귀장역(歸藏易)이라는 역서가 있었다고 한다. 역이란 말은 변역(變易), 즉 '바뀐다' '변한다'는 뜻이며 천지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현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풀이한 것이다.

이 역에는 易簡(이간)·변역·불역(不易)의 세 가지 뜻이 있다. 이간이란 천지의 자연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나 간단하고 평이하다는 뜻이며 이것은 단순하고 간편한 변화가 천지의 공덕임을 말한다. 변역이란

작성 : 2009년 12월

천지만물은 멈추어 있는 것 같으나 항상 변하고 바뀐다는 뜻으로 양(陽)과 음(陰)의 기운(氣運)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불역이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모든 것은 변하고 있으나 그 변하는 것은 일정한 항구불변(恒久不變)의 법칙을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법칙 그 자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역》은 8괘(八卦)와 64괘, 그리고 괘사(卦辭)·효사(爻辭)·십익(十翼)으로 되어 있다. 작자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왕필(王弼)은 복희씨(伏羲氏)가 황허강[黃河]에서 나온 용마(龍馬)의 등에 있는 도형(圖形)을 보고 계시(啓示)를 얻어 천문지리를 살피고 만물의 변화를 고찰하여 처음 8괘를 만든 뒤 이를 더 발전시켜 64괘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또 사마천(司馬遷)은 복희씨가 8괘를 만들고 문왕(文王)이 64괘와 괘사·효사를 만들었다 하였으며, 마융(馬融)은 괘사는 문왕이 만들고 효사는 주공(周公)이, 십익은 공자(孔子)가 만들었다고 하는 등 작자가 명확하지 않다.

역은 양(陽)과 음(陰)의 이원론(二元論)으로 이루어진다. 즉, 천지만물은 모두 양과 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늘은 양, 땅은 음, 해는 양, 달은 음, 강한 것은 양, 약한 것은 음, 높은 것은 양, 낮은 것은 음 등 상대되는 모든 사물과 현상들을 양·음 두 가지로 구분하고 그 위치나 생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 주역의 원리이다. 달은 차면 다시 기울기 시작하고, 여름이 가면 다시 가을·겨울이 오는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나 그 원칙은 영원불변한 것이며, 이 원칙을 인간사에 적용시켜 비교·연구하면서 풀이한 것이 역이다.

태극(太極)이 변하여 음 ·양으로, 음 ·양은 다시 변해 8괘, 즉 건(乾)·태(兌)·이(離)·진(震)·손(巽)·감(坎)·간(艮)·곤(坤) 괘가 되었다. 건은 하늘·부친·건강을 뜻하며, 태는 못[池]·소녀·기쁨이며, 이는 불[火]·중녀(中女)·아름다움이며, 진은 우레·장남·움직임이며, 손은 바람·장녀, 감은 물·중남(中男)·함정, 간은 산·소남(少男)·그침, 곤은 땅·모친·순(順)을 뜻한다. 그러나 8괘만 가지고는 천지자연의 현상을 다 표현할 수 없어 이것을 변형하여 64괘를 만들고 거기에 괘사와 효사를 붙여 설명한 것이 바로 주역의 경문(經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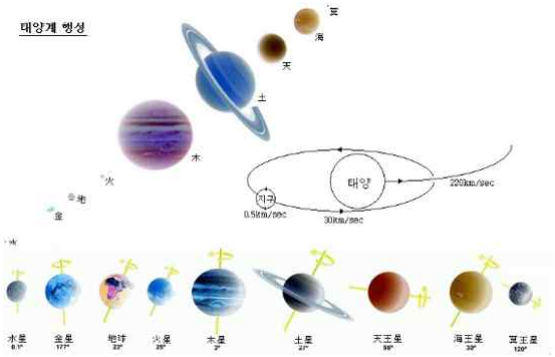
《주역》은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석한 《십익》의 성립으로 경전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십익>은 공자(孔子)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전국 시대부터 한(漢)나라 초에 이르는 시기에 유학자들에 의해 저작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십익이란 새의 날개처럼 돕는 열 가지라는 뜻으로, 즉 단전(彖傳) 상·하편, 상전(象傳) 상·하편, 계사전(繫辭傳) 상·하편, 문언전(文言傳)·설괘전(說卦傳)·서괘전(序卦傳)·잡괘전(雜卦傳)이 그것이다. 《주역》은 유교의 경전 중에서도 특히 우주철학(宇宙哲學)을 논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일본·베트남 등의 유가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점복술의 원전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다.

● 음양오행의 수학적 원리와 그 응용 [참조 : 입체음양오행 www.gobul.kr]

박용규 객원 칼럼니스트 (2009.04.20 00: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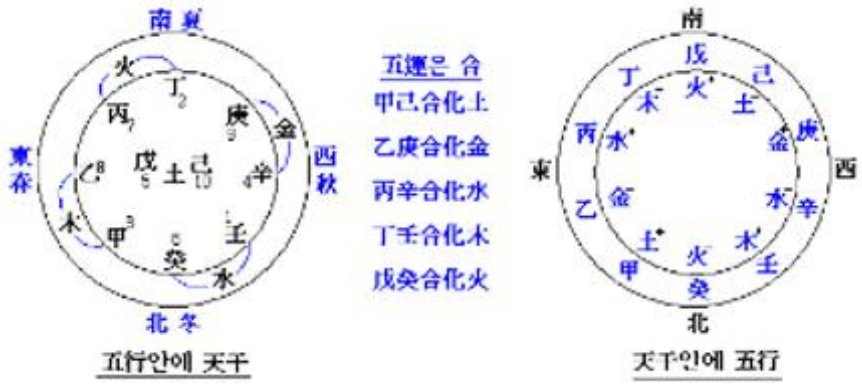
60甲子가 무엇이 길래 동양철학에서는 온통 이를 이용하여 삶의 모두를 해석하고 있는가?

작성 : 2009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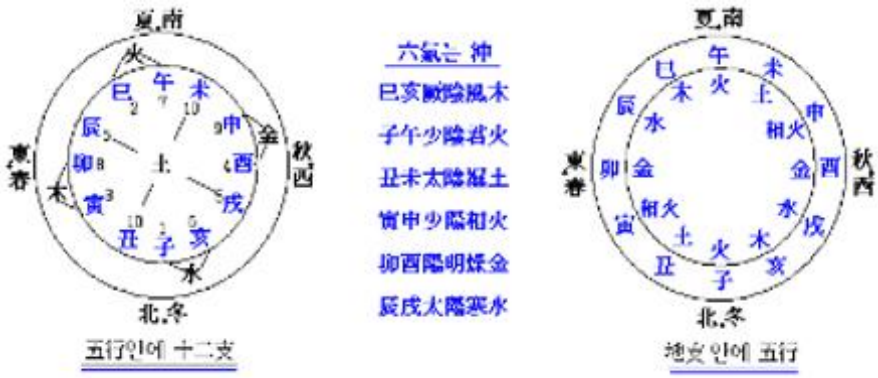
기(氣)란 그 종류에 따라 일정한 범위를 가진 진동하는 에너지로서 그 주파수가 운동하는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천체의 운동은 시계반대방향으로 운동하며, 지구의 표면은 대략 초속 0.5km의 초음속(超 音速=340m)으로 자전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가고, 지구자체는 초속 30km의 속도로 태양주위를 1년에 걸쳐 한 바퀴씩 공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황도와 백도가 만나는 춘분점이 매년 50.3초씩 빠른 것은 태양계 전체가 초속 220km로 은하계를 운행함으로써 생기는 세차운동의 원인이므로 대략 25765년(50.3초가 360도에 이르는 기간)에 1주기를 이루고 있어도 어지럼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인 가속도(加速度)가 영(零)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천기(天氣)라는 천간(天干)은 지구의 자전(自轉)에 의해 사시(四時; 晝夜朝夕)를 생성하고 공전(公轉)에 의해 사계(四季)를 생성하며, 이로 인해 진동하는 복사(radiation) 에너지인 우주의 기(天氣)가 네 방위에 따라 그 주파수가 변화(도플러 효과에 의해)되어 사상(四象)을 이루니 중심에 화기(火氣)가 발동하는 입체오행의 물체가 생성하기 시작하고 이를 제로(零)가 되게 하려는 자연현상의 상화(相和)를 받게 된다. 그 상화(相和)중 내면의 심포(心包)가 칠정(七情; 희.노.애.사.비.공.경)의 감정을 다스리고, 외면의 삼초(三焦; 상초, 중초, 하초)가 몸의 기관들을 관리 조정하므로 오행(생물)이 영혼을 가진 생명체를 형성시키게 된다.



이러한 오행(五行)이 사시(四時) 사계(四季) 중에서 오행의 음양(陰陽)을 10가지로 합(合; 2로 나누어 홀수가 되면)을 이루며 순환시킨 것을 십간(十干; 합이 서로 대응하는 것은 태과와 불급을)이라 하고,

작성 : 2009년 12월



지기(地氣)라는 지지(地支)의 육기(六氣)는 지구의 축(軸)이 약 23.5도 기울어짐에 의해 생긴 것으로 천기(天氣)로 생성된 오행의 생명이 탄생하여 육기(六氣; 風.寒.暑.濕.燥.和)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하므로 육기(六氣)의 음양(陰陽)을 12가지로 충(沖; 2로 나누어 짝수가 되면)을 이루며 순환시킨 것을 십이지(十二支)라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천기(天氣)란 진동(振動)하는 에너지인 우주의 기(宇宙 氣; 복사에너지)라는 것으로 이것은 지구(地球)의 자전(自轉)과 공전(公轉)에 의해 속도가 변화하므로 천기의 진동수는 속도에 비례하여 지구의 어느 한 점에서 받는 기(氣)의 변화가 동. 서. 남. 북의 방향 따라 진동수가 달라지는 관계로 동쪽에서 받는 기를 목기(木氣), 서쪽에서 받는 기를 금기(金氣), 남쪽에서 받는 기를 토기(土氣), 북쪽에서 받는 기는 수기(水氣)가 되고 이들이 사상(四象)을 이루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구표면의 한 점 P에서 느끼는 동서(東西)의 운동방향과 마찬가지로 남북(南北)의 자속의 방향에 따라 천기의 주파수에 변화를 가져온다. 여기서 천기의 주파수를 F, 속도를 V라하고, 간단히 자전이나 공전 속도를 v라 할 때 변화된 주파수를 Fx 라 하면 Fx=F(V±v)/V로서 변화를 가져와 동서(東西)가 서로 대응하는 것같이 남북(南北) 또한 대응하므로 사상(四象)을 이루니 오행이 탄생한다.

사상(四象)에서 화기(火氣)에 의한 입체오행이 형성되어지는 순간 이를 영(零)으로 조화시키려는 상화(相和)의 기(氣)를 받아 생명을 가진 생명체로 성장하여 오행이 육기 속에 탄생하면 두 가지의 지기(地氣)를 만나서 육기(六氣; 寒.熱.燥.濕.風.和)를 이기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기(地氣)에는 중력(重力)에 대응하는 복사에너지와 지축(地軸)이 약23.5도 기울어져 생기는 대류현상에 의해 순환되는 육기(六氣)의 음양을 충(沖; 2로 나누어서 짝수로 虛와 實을 이룬다.)으로 순환하는 이론이 12지(支)라는 것이다.

천간-오행-지지(地支; 對流에너지에 따른 六氣)속에 살아가는 오행을 조합한 것이 60갑자(10과 12의 최소공배수; 생물의 순환주기)가 되어 그 속에는 태과(太過)와 불급(不及)의 천기 속에서 태어난 생명체가, 허(虛)와 실(實)의 지기(地氣)를 헤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속에 하늘에서 주어진 목숨과 자연(自然)의 법칙(法則)이 있으니 이를 가지고 생명체의 운(運)을 알아보는 것이 명리(命理)이고, 정지된 천간-오행-지지(地支; 복사 에너지)를 조합한 20년(오행과 육기가 하나씩 정지한 4와 5의 최소공배수; 무생물의 순환주기)이 洛書九宮(中心+八 方位)의 방향 따라 다르게 나타나(180년=20x9)게 되어 생물과 무생물의 운(運)을 회합시켜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순환(180년=상원60년+중원60년+하원60년)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을 찾아내는 것이 풍수(風水)라 할 수 있다.

작성 : 2009년 12월

여기서 상화(相和)란 칠정(七情; 喜.怒.哀.思.悲.恐.驚)의 감정을 가지게 하는 심포(心包)와 오장육부(五臟六腑)를 관리하는 삼초(三焦;上焦.中焦.下焦)라는 영(靈)과 혼백(魂魄)을 가진 생명체를 형성시키는 기운(氣運)을 말한다.

그래서 天氣-五行-地氣를 조합한 것이 60甲子가 되어 60갑자(甲子)속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허(虛)와 실(實), 태과(太過)와 불급(不及)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운기(運氣)학이라 하여 이를 치료(治療)에 쓰면 의학(醫學)이고, 운수(運數)를 보면 명리(命理)가 되고, 좌향(坐向)을 보면 풍수(風水)가 되고, 약(藥)에 쓰면 본초(本草)가 되며, 보사(補瀉)에 쓰면 침술(鍼術)이 될 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나 동양철학의 모든 기준이 역(易)에 그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반드시 그 시작은 주역(周易)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12지에 10간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면

12	1	2	3	4	5	6	7	8	9	10	11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오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임오	계미	갑신	을유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임인	계묘	갑진	을사	병오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계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오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계해

*10간(干)에 12지(支)를 순차적으로 나열하면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원(曆元)이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인 동지(冬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해가 다 가버린 해(년)의 약10일 전인 동지(冬至; 陽의 출발점)를 기준하므로 역원의 기준점이 되는 해(年)는 상원(上元), 계해(癸亥)년, 갑자(甲子)월, 동지(冬至;갑자일)를 기준하여 력(曆)을 작성하고, 새해의 시작은 중원(中元), 갑자(甲子)년, 입춘(立春)을 기준하므로 연주(年柱)는 입춘(立春)이 된다.